

2021년 4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담당관 박상호(044-201-1211), 김재학 사무관(1212)/ 제공일: 4월 12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장관, '아들 자소서' 직원 대필 지시 사실 무근 [JTBC 4.12일자 보도 관련]

- (보도내용) 김현수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으로 있을 때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쓰게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음. 이를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새로 뽑았다고 제보자가 주장.
- 4월 12일 JTBC < 농식품부 장관, 8년 전 '아들 자소서' 직원 대필 의혹 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동 건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 A가 해고(13.1.23)*에 불만을 품고,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, 감사원, 국회(민주당, 정의당), 경찰서 등에 민원을 지속 제기했던 사안이며,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.
- 보도의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.

- * 제보자는 2011년, 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. 해고 직전 농림수산물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(재직증명서)를 작성·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되었음

□ “자녀 대입 자기소개서 대필 지시” 주장 관련

- 김현수 장관(당시 식품산업정책관)은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,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.
- 문제의 자기소개서는 김현수 장관의 아들이 직접 작성하였으며, 기사에서 보도된 직원 B는 대입용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수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. 또한 김현수 장관의 아들은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.

- * 김현수 장관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과장이 김현수 장관과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아들의 극작과 응시사실을 알게 되었음. 이후 과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직원 B가 자기 소개서를 봐 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되었음. (직원 B가 과장에게 요청하여 김현수 장관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메일로 받았음)

□ “자소서 대필을 위해 작가 채용 지시” 주장 관련

- 당시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했으며, 이에 ‘기자·작가 경력자’를 채용하였습니다.

- * 채용공고는 2012.4월이며,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2.9월

□ “문건 파일 작성자가 B씨”라는 주장 관련

- 제보자인 직원 A는 자기소개서 한글파일의 작성자가 직원 B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,

제보자가 제시한 한글파일의 문서정보는 해당 내용을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- 참고로, 제보자 A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 ('09~'12년)에 걸쳐 공문서·사문서 변조했으며 ‘공문서변조, 변조 공문서 행사’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. (2014고단1260판결)

□ “농식품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”는 보도 관련

- JTBC측은 금일 오전에 “충분한 반론과 상세한 해명을 요청” 하는 공문(4.12일자)을 농식품부로 보내왔습니다.
- 우리부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, JTBC측이 금일 저녁 뉴스시간에 바로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

< 그간 경과 >

- ◇ 위변조문서로 농식품부에 취직한 계약직 직원이 ▲계약기간 만료에 불만을 품고 정규직 팀장 자리를 요구하면서, ▲지난 7~8년간 '자소서 대필, 부당해고' 관련 신고, 고소,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건으로서 ▲모든 조사결과 무혐의
- ◇ A직원 계약기간('11.4-'13.3, 국가클러스터추진팀)
 - (1차) : '11.4.18~'11.12.31(8개월)
 - (2차) : '12.1.1~'12.12.31(12개월)
 - 재계약 불가 구두 통보 : '12.10.7
 - 최종 재계약 불가 통보 : '12.12.28
 - (3차) : '13.1.1~'13.3.31(3개월)
- ◇ A직원 해고('13.1.23)
- ◇ A직원, 국민신문고 신고('13.3.7) → 무혐의(농식품부 감사실, '13.3)
- ◇ A직원, 감사원 신고('13.3) * 국민권익위 이첩
- ◇ A직원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('13.3.7) → 무혐의('13.5)
- ◇ A직원, 민주당 B의원실 신고 → 무혐의
- ◇ A직원, 정의당 C의원실 신고 → 무혐의
- ◇ A직원, 민사소송(해고무효확인)제기('13.12.13), 대법원 최종 판결('16.9.29) → 원고패소
- ◇ 농식품부, A직원 형사고소('14.9) → 징역1년, 집행유예2년, 사회봉사 160시간 (죄명 : 공문서 변조, 변조공문서 행사 / 총 21건 공·사문서 변조)
- ◇ A직원, OO경찰서 형사고소('15.4) → 무혐의('15.5)
- ◇ A직원, OO지방검찰청 신고('15.5) → 무혐의(불기소 결정, 2015.6.24.)
- ◇ A직원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('18.5) → 무혐의